

진도군에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 들어선다

410억원 투자...야구장(4면)과 실내연습장, 호텔 등 300명 고용 창출 예상 대규모 전지훈련과 전국 대회 개최 등 국제 규격 야구장 조성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에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이 조성된다. 진도군과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대표 서정환)은 지난 2일(금)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팀의 동·하계 전지훈련과 전국 대회 개최 등을 위한 야구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도군과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은 이

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지 훈련과 각종 야구 대회 개최 등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중 온화한 기후로 탁구, 럭비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 개최지이자 동·하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아 온 진도군에 이번 협약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야구 훈련·경기 시설과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게 됐다.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은 야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 임회면 상관리 위치한 진도 아리랑 관광단지 일원(117,033㎡)에 410억원을 투입, 국제 규격 야구장 4면 등을 조성해 3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천연·인조 잔디 구장(각 2면)을 비롯해 호텔(150실), 타운빌리지(60동), 실내연습장, 사우나, 클럽필드 등을 올해 말 착공을 시작, 오는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



장흥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발대식 개최

장흥군은 1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2024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가졌다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 산불 관련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 이어 산불 초동진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진화훈련에 버금가는 체력검정을 통해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은 앞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3개 조로 편성·배치된다. 2월부터는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논저발두렁 불 지르기 등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선다. 산림과 인접한 유휴농지의 인화 물질제거 작업도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귀농귀촌 해남살이 알려 드려요" SNS 동네작가 모집

해남군은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모습의 해남살이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알리는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집한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생생한 현장정보를 전달하고, 우수 정착사례 등을 소개해 지역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해남에 전입한 선배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해남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 글 작성 및 이미지·영상 편집이 가능하고 개인 SNS 운영자, 관련 전공 또는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우선선정한다. 동네작가로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SNS 또는 귀농귀촌 관련 행정 누리집에 콘텐츠를 게시하면, 1건당 5만원, 월 최대 2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14명이며, 2월 16일까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전남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

완도군에서는 고금 뱃도, 금일 다랑도를 대상으로 각각 선박 1척을 투입하여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정부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으며, 여객선이 미 기항하는 도서에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형 등을 중

선박 운영 및 운항은 각 마을 공동체에서 맡는다. 그동안 고금 뱃도와 금일 다랑도에는 여객선이 없어 주민들이 사선을 이용해 육지를 다녀야 했으나 사업 선정으로 해상 교통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금 뱃도, 금일 다랑도 마을 공동체에서는 "여객선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운송수단이 생겨서 주민들이 기쁘게 생각하

해양수산부 사업 타당성 등 평가, 고금 뱃도·금일 다랑도 선정 선박 1척씩 투입...인건비·유류비 등 선박 운영 비용 지원

합적으로 평가해 완도군에서는 고금 뱃도와 다랑도가 선정됐다. 이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군과 고금 뱃도, 금일 다랑도의 마을 공동체는 7개월간 협력하여 운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고금 뱃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1일 2회 선박 운항을 시작했다. 금일 다랑도는 2월 말에 선박을 운항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 23일...청자축제 동시 개최

강진군은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를 도암면 백련사 동백숲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만덕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백련사의 역사 문화를 함께 품고 있는 백련사의 동백숲은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봄이 되면 7m 높이의 동백나무들이 일제히 동백꽃을 피워내는 눈부신 장관을 연출한다.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돼 있으며, 백련사는 다산 정약용이 해장스님과의 깊은 우정을 나눈 역사적 공간으로, 강진군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동백의 풍경을 통해 강진의 새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처음 축제를 개최한다. 백련사 동백 축제의 개최 기간은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와 같이 기간 내에 강진을 찾은 관

객자들은 강진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백축제장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청자축제장은 강진의 대표문화유산인 청자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2024년 봄축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동백축제장에서는 ▲동백숲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한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무료인화 서비스 ▲동백숲 스토리텔링 ▲'청림으로(路)' 워크온 스탬프 투어 ▲다산초당 서각체험 ▲동백숲 걷기대회 ▲동백꽃 그리기 ▲동백림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진흥원

전라남도